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욕하면서도 보게 되네

시청률 4% 넘어서며 MBC 정규 편성 김재욱·박세미 부부 모습에 시청자 공분 PD “공감 통해 성찰해 보는 계기 되길”

시청자의 분노는 예상보다 컸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조율을 잘 못 하는 모습을 보여준 개그맨 김재욱은 그야말로 ‘유단폭격’을 맞았고, 개인 SNS까지 단아야 했다.

MBC TV가 파워릿으로 선보인 교양 프로그램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가 방송 2회 만에 시청률 4%(닐스코리아)를 넘어서고, 방송 후에는 관련 기사 댓글이 폭주하는 등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화면에 비친 세 가족 중 가장 공분의 타깃이 된 김재욱-박세미 부부다.

박세미는 둘째 임신 8개월에도 시댁에 가면 음식 하라, 애 보라 좀처럼 자리에 앉지를 못한다. 남편은 친정에 가면 ‘백년손남’이지만 자신은 시댁에서 ‘백년일꾼’이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버거운데 시어머니는 벌써 셋째를 권유하고, 시아버지는 자연분만을 언급한다. 남편은 “그럼 1시간만 진통해보고...”라며 ‘절충안’이랍시고 맛토로 말한다. 결국 박세미는 “병원에서 제 건강을 생각해 제왕절개 수술을 권하는데, 아버님은 손주만 생각하시느냐”고 눈물을 터뜨린다.

이밖에 워킹맘 김단빈을 끊임없이 뒤달리는 시어머니 역시 시청자들의 가슴을 갑갑하게 한다.

사실 이런 류의 사연은 포털사이트 네이트의 ‘판’ 코너나, 다음 ‘미즈넷’에서 흔히 본다. 박세미 사연을 두 곳 중 하나에 올린다면 댓글도 별로 안 달린 채 묻힐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시 화면이 주는 생생함과 몰입감은 확실히 다르다.

시청자들이 욕하면서도 계속 보게 되는 이 프로그램은 잘 만든 막장드라마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는 교양 프로그램이다. 공분을 모아 가장 내 비정상적인 권력구조를 수면위로 꺼내보는 계기로 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나아간 역할을 기대하게 된다.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정성후 프로듀서는 25일 통화에서 “소위 ‘맘카페’ 같은 곳을 보면 시댁 욕으로 밤을 새우는 비정상적인 활동들을 볼 수 있다. 물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면도 있겠지만, 결국 이 사회가 여성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정 PD는 그러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고부갈등’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이 문제의 본질은 불평등한 가족문화와 성차별인 만큼, 단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관찰 카메라 형식으로 세 며느리 이야기를 보여주며 공감을 얻고, 전문가 분석을 통해 자신의 집안도 성찰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게 제작진 생각이다. 김재욱과 김재욱의 부모 역시 일상을 화면에 담는 데 동의했다는 제작진 이야기로 미뤄 짐작해 보면 평소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아마 지금쯤은 ‘가족회의’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

정 PD는 “시청자들이 김재욱 씨네 가족을 욕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집안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하기로 한 가운데 시청자들도 한숨 돌리고 ‘성찰’의 기회를 얻는 것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의미”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상파 3사 ‘남북정상회담’ 특집 방송 편성

다큐멘터리·대담·토론 등 다양하게 구성

지상파 3사가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다양한 특집 방송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MBC TV는 26일 오후 11시 10분에는 특집 다큐멘터리 ‘테이블 너머의 김정은’을 방송한다. 제작진은 중국과 스위스 등지를 취재해 만든 영상을 통해, 김정은과 북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본다.

회담일인 27일에는 오전부터 특별 생방송 ‘한반도의 봄, 평화의 길로’를 방송. 북측으로 향하는 김복임 임진각에 특설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회담 소식을 전한다.

아울러 26일부터 28일까지 간판뉴스인 ‘뉴스데스크’를 특집체제로 전환, 집중이슈팀에서 시청자 질문을 받아 답을 들려준다.

이밖에 27일 오후 10시, 28일 오전 9시에 특별 대담과 특집 토론을 마련해 정상회담 의제와 합의 내용을 집중분석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전문가가 출연할 예정이다.

SBS TV는 회담일인 27일 오전 6시 ‘특집 모닝와이드’를 시작으로 ‘나이트라인’까지 총 19시간 30분 동안 특집 편성

체제에 돌입한다.

또 총 5부로 나눠 진행되는 ‘2018 남북정상회담 특별 생방송-평화의 길목에서’에는 김범주, 김용태, 한수진, 주영진, 김성준 등의 앵커가 투입된다. 아울러 박지원 의원과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김현우 앵커가 진행하는 ‘SBS 8뉴스’는 당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방송한다.

이러 밤 11시 30분에는 ‘2018 남북정상회담 특집 토론-평화의 길 열리나’를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과 주영진 앵커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전직 장·차관 등 남북 관계 전문가들이 출연해 회담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한다.

KBS도 전날 밝힌 대로 26일 오후 2시 토론 프로그램, 26일 오후 10시 ‘명견만리’ 특집, 27일 ‘함께하는 평화, 함께여는 미래’를 주제로 한 중일 뉴스 특보, 27일 밤 10시 특별 대담, 28일 오전 7시 50분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특집 남북의 창’ 오후 9시 40분 ‘KBS스페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연합뉴스

조계종 “PD수첩 ‘설정스님 3대 의혹’ 방송금지 해달라”

조계종 “불교 음해·훼손하는 훼손행위” PD수첩 강지용 CP “충분한 근거로 제작”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이 ‘설정 스님 3대 의혹’을 다룬 MBC PD수첩의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조계종은 “PD수첩이 불교계 일각의 의혹 제기를 비롯해 현재 소송 중에 있어 객관적 사실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안까지도 포함해 방송을 제작하고 있다”며 25일 서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PD수첩’은 5월 1일 방송 예정인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의 3대 의혹’의 예고편을 공개했다. 예고편에는 ‘폭력·여자·돈 조계종의 민낯’ 의혹의 중심 설정스님 등의 자막과 함께 명진 스님, 유홍주점 사장 등과의 인터뷰를 담았다.

‘PD수첩’ 강지용 CP는 25일 “한 달여 취재를 통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며 “제작진이 오래전부터 생각한 아이템이었고 방송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심플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기획실장 금산 스님은 “만약 방송이 이뤄질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사실인 양 보도한다면 검토를 거쳐 손해배상 청구, MBC 사장 퇴진 운동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적당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



은 받아들여 종단이 바로 서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설정스님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불교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것이 내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확실하게 밝혀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종단 자정 작업과 관련해서는 “종방 절차를 밟으면서 실현해야 하므로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종단이 바로 서는 모습을 차근차근 보여주겠다고 했다.

한편, 조계종은 설정 스님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정중하게 공문과 질문지를 보냈다는 PD수첩 측의 주장에 대해 “지난 16일 조계종 기획실 홍보국에 PD가 전화를 걸었고 질문지를 보내달라는 요청에는 정식 공문도 아닌 이메일 질문지를 보냈을 뿐이며 24일야 MBC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작성된 공문을 홍보국으로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억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백미 인생	25 닥터 365 30 해피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TV스쿨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비록(재) 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슈츠(재)		00 애니갤러리 30 고양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5 인형의 집(재)	00 12 MBC 뉴스 20 2018 지구촌어린이들이 희망더하기 <캐나판>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형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팔도밤상 스페셜		30 선을 넘는 녀석들 스페셜	55 닥터 365
2	00 2018 남북정상회담 전문가 토론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50 에어로버	00 뉴스브리핑
3	00 TV비평 시청자 데스크	00 자등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치원	20 드림 주니어 50 데일리남편 오락주(재)	
4	00 4시 뉴스집중 40 2018 지방선거 정당정책연설 (바른미래당)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뉴스콘서트	00 미디어세상 시청자와 통하는 TV
5	00 KBS 뉴스 5 30 전곡을 달린다 40 KBS광주 연속특별기획 남도 스페셜	00 생일왕국의 프린세스 프링 2 15 토이킹 2 30 주간연예수첩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닥터 365 05 고향건강문 남도에 살아리랴다 55 지식 통조림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헬스들 55 특집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의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브24 55 속보이벤트 TV 인사이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특집 KBS 뉴스 9			
10	00 명견만리 55 UHD 숨터	00 슈츠	00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	00 스위치-세상을 바꿔라
11	00 KBS 뉴스라인 40 국제공동제작 아시안피치 (24번가-중국)	10 해피투게더	10 남북정상회담 특집다큐 테이블 너머의 김정은	10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1~2부
12	35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스포츠 다이아리 25 2018 지구촌어린이들이 희망더하기 스페셜 <캐나판>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15 두다다(재)	14:30 레인보우 루비
05:30 통일의 길 <북한의 교통수단>	09:30 몰랑	15:00 호기심 소녀 도트.
06:00 한국기행(재)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5:15 파파리카
06:20 세계테마기행(재)	10:30 한국기행(재)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재!) 마다가스카르 4부 말라가시 일상으로의 초대)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07:0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너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07:30 띠띠뽀 띠띠뽀(재)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말랄라 뿌우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08:00 당동명 유치원 1~2	13:00 지식채널e	1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8: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3:10 장수의 비밀 <스마일 부부의 하하 호호 인생>	17:45 뽀롱뽀롱 뽀로로
08:45 말랄라 뿌우	13:40 다큐 시선 <은퇴해도 되나요>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4
09:00 뚝딱맨		19:00 사이언스타 Q
		19:30 EBS 뉴스
		19:50 배워서 남줄(재)
		20:40 세계테마기행 <충추는 서아프리카 4부 난생처음 도쿄>
		21:30 한국기행 <전지기행 4부 봄 날의 약속>
		21:50 다큐 시선 <갈날 위의 조선>
		22:45 다문화 고부열전 <며느리 부부싸움에 들볶이는 시어머니>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25:05 지식채널e
		25:10 과학 다큐-비욘드(Beyond) <미래식량, 새로운 먹거리의 탄생>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6일(음 3월 11일 戊子)	
子	36년생 모순에 빠지면 과실로 이어지는 국량이다. 48년생 준비해 두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60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희소식을 접한다. 72년생 감안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요체가 된다. 84년생 정비만 잘 한다면 이익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62, 88	午	42년생 요령껏 행하라. 54년생 지지 기반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 66년생 평상시에 공을 들여 놓는다면 실제로 입했을 때 훨씬 매끄러울 것이다. 78년생 자신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 흡족했다. 90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일이 겹치리라. 행운의 숫자 : 02, 41
丑	37년생 실의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무리가 없었다. 49년생 피 같이 소중한 것들이 줄줄 새고 있으니라. 61년생 여의치 않을 수도. 73년생 부록하니 속히 보완토록 하자. 85년생 주변의 평에 신경 쓰지 않고 소신껏 행한다면 효과는 클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92, 64	未	43년생 지출은 정래를 위한 투자가 되리라. 55년생 대의를 위하여. 67년생 특별히 시사 하는바가 있을 것이다. 79년생 머지않아서 절실할 필요하게 될 것이니 가볍게 행동하지 말라. 91년생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다. 행운의 숫자 : 17, 80
寅	38년생 막혔던 바가 시원하게 풀릴 것이다. 50년생 주마기편해야 한다. 62년생 불리한 사항은 즉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74년생 의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라. 86년생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 45, 43	申	44년생 상스러운 기운이 비추니 도처에 혼풍이로다. 56년생 발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이었다. 68년생 희망적이나라. 80년생 인과 관계를 냉철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92년생 난해하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보자. 행운의 숫자 : 13, 31
卯	39년생 차원이 달라질 것이니라. 51년생 잘 살펴보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패인을 낳는다. 63년생 이따기질 말고 기반이 있는 것이 안전하다. 75년생 기왕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것이 옳다. 87년생 연쇄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98, 52	酉	45년생 등잔 밑이 어둡다. 57년생 결정적인 시기에 맞춰서 행해야 할 중재대상이 있다. 69년생 아직은 현재감이 보이지 않는다. 81년생 상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93년생 흥의 기운이 사라지면서 감성이 비추어오고 있다. 행운의 숫자 : 15, 54
辰	40년생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52년생 구대에서 벗어나야만 새로운 면모를 도모하게 된다. 64년생 쌓아 올리다보면 완성한다. 76년생 승리의 여신은 노력을 사랑하니라. 88년생 진땀을 흘리면 애를 써야만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9, 23	戌	34년생 허레나 명분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실질을 우선 해야겠다. 46년생 본질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58년생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날 수도 있는 국세이다. 70년생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82년생 거주장소라면 버려도 된다. 행운의 숫자 : 57, 86
巳	41년생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다. 53년생 불리한 조건이라도 수용하고 보자. 65년생 쉽게 현혹될 수도 있다. 77년생 쌓아 올린 것들이 너무 쉽게 끝나버릴 것이다. 89년생 극한 상황에서 선화하는 성국이나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내밀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78, 53	亥	35년생 완곡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교가 필요하다. 47년생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59년생 무난한 상태에서 성과가 보인다. 71년생 객관적인 사실로서 대해야 할 때다. 83년생 짐작보다 훨씬 심각하다. 행운의 숫자 : 96, 5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팀” ☎010-9790-8237